



석수조경을 찾아서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서울의 남쪽 관문 수려한 백운산과 호반 관광 유원지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백운 저수지가 있는 수도권 전역도시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에 둘러싸인 남부지역 한북판의 의왕시 오전동에 자리한 우리 조경수협회 인천 경기남부지회를 맡고 있는 봉기종 지회장의 석수조경을 찾았다.



봉기종 (석수조경 대표)

덕고개 사거리에 자리한 농장

봉기종 지회장의 석수조경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안양시 호계동과 접한 경계지역으로 안양교도소 옆 도로 건너편에 있다.

60~70년대까지만 해도 국도 1호선을 타고 서울을 갈라치면 수원에서 안양 사이 허허벌판 농촌지역에 유난히 큰 건물 하나가 덩그렇게 자리한 것이 바로 1963년도에 서울 마포교도소가 이전한 것으로 지날 때마다 항상 눈에 띄었지만 지금은 도시 북판이 되어 버린 안양교도소 바로 앞 “덕고개 사거리” 맞은편에 석수조경이

자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안양이나 과천으로 가는 높은 고개가 있어 덕고개라는 지명으로 불렸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왕복 8차선 도로에 아파트와 건물들이 꽉 들어차서 고갯길은 다 없어지고 서쪽 군포시에서 동쪽 과천시로 가는 흥안대로와 남쪽 의왕시청에서 북쪽 안양시청으로 가는 도로가 만나는 요지중의 요지인 동남쪽 코너 부분 산기슭에 잘 가꾸어 놓은 도심의 소공원 같은 느낌의 아담하고 멋진 농장이다.

“석수조경”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아니면 도로변 꽃길이나 소공원 가꾸기를 한곳으로 착각되는 크지 않은 면적에 반송이며 철쭉, 무궁화 등 각종 조경수들이 울타리나 담장도 없이 자연석 석축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 같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작은 사무실을 갖추어 농장 겸 전시포로 활용하고 있다.

늦깎이 조경인의 인생 역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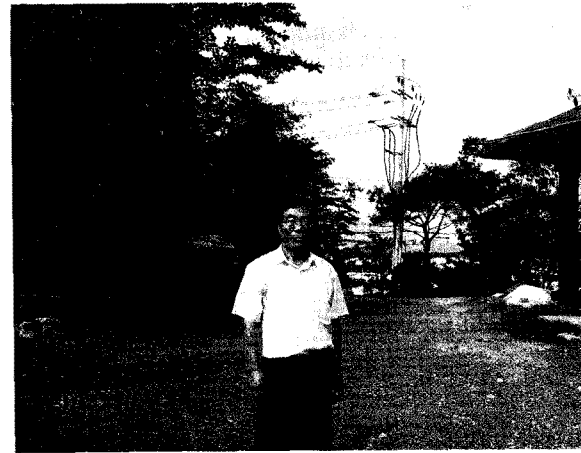
그의 고향은 전남 영광군이다. 굴비로 유명한 고장이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시골 농촌 마을로 대대로 농사를 짓던 봉(奉)씨 집안에서 4남 2녀 6남매 중 가장 맏이로 1948년에 태어났다.

봉(奉)씨는 고려 예종 1년(1106년)에 강화군 하점면 하음산 아래 연못에서 떠오른 석관 속에서 발견된 아이가 이후 궁궐에서 양육되어 커서 위위시경이라는 벼슬을 지낸 봉우(奉佑)라는 분을 시조로 하는 강화도의 하음봉씨 단본으로 황해도 연백지방과 경기도 안성·평택 그리고 전남 영광·나주지역에 많이 거주하지만 전체 2,000가구 내외인 희귀 성씨 가문 이란다.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친 그는 1978년 첫 직장으로 안양지역에 있던 삼력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 입사 여러 가지 건축 관련 업무를 겪다 보니 자기도 창업하면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5년 만에 퇴사.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어디 그렇게 만만한가 부도에 사기에 갇은 악재에 시달리고 사출기를 이용한 제조업도 해보고 하였지만 실패와 슬한 고생만 하고 1987년 다시금 직장생활을 한 것이 수원에 있는 초계조경이라는 조경업체에 취업, 조경수 재배부터 시공 설계까지 각각 조경관련 기술을 익히고 경험하면서 노후에도 실직 걱정 없이 건강을 지켜 가며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조경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1999년 50이 넘는 나이에 늦깎이 조경인의 길로 들어섰다.



덕고개 사거리 도로와 오전동 본농장전경



오전동 본농장의 봉기중 지회장



오매기 농장의 작은연못



오매기 농장 향나무와 반송단지

의왕지역 대표적 조경인으로 성장

그는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의왕시에서 조경수 재배를 시작했지만 짧은 기간에 의왕지역을 대표하는 조경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78년 처음 안양에 있는 건설회사에 취업하여 수년간 안양에 살면서 이웃한 의왕시 지역을 잘 알고 있어 지방 특성에 맞는 조경수 재배와 시공을 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의왕시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이다.

게다가 대중교통의 필수인 수도권 지하철도 지나지 않으니 인구 증가도 적고 개발 붐에 따른 부동산 폭등도 없는 주로 중산층이 많은 지역으로 애초 경기도 광주군 왕륜면 이었다가 1914년 수원군 의왕면으로 다시 1936년 일왕면으로 개칭 후 1949년 수원군에서 화성군으로 변경, 1963년 시흥군 관할로 되어 의왕면으로 개칭 후 1980년 읍으로 승격, 이후 산업화에 따라 1989년 의왕읍 지역이 그대로 시로 승격된 인구 15만 명의 비교적 작은 신설도시이다.

조경회사에 다니던 1995년부터 이곳 의왕지역에 다 농지를 임차하여 느티나무·단풍나무·벚나무



남양신남 농장 주목단지

등 대표적 조경수들을 재배하며 조경업의 기반을 다지다 적당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1999년 전 재산과 생계형 창업 자금을 받아 당시 임야 상태로 방치된 지금의 오전동 1번지 땅을 구입 조경농장으로 개간하고 석수조경을 설립, 처음 일반사업자부터 시작하여 주로 서민들과 영세 사업자들을 상대로 작은 일도 마다 않고 성심껏 시공한 것이 널리 알려져 2003년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확대하여 날로 번창 의왕지역 대표적 조경인으로 우뚝 선 것은 아마도 농장 위치가 좋은 덕인가 한단다.

도심 속의 산골 오전동의 오매기 농장

그는 의왕시 관내에 세 군데의 농장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도시 지역이다 보니 땅값이 고가인데다 교통 좋은 곳은 다 개발이 되니 자연 오지의 자투리땅을 구입하게 된 것이 오전동의 오매기 농장이다.

오매기 농장은 사무실이 있는 석수조경의 본 농장과는 같은 오전동이지만 산속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과천-봉담간 산업도로의 의왕터널 남쪽 입구 바로 위쪽에 있으며 옛날부터 삼태기형의 깊은 골짜기로 피난처로 이름난 부락으로 유씨, 문씨, 진씨, 노씨, 마씨의 다섯 성씨가 각각 막(幕)을 짓고 살아서 오막동(五幕洞)으로 불려 오다 조선 말엽에 오매기(五馬洞)가 된 자연 부락으로 좁은 농로길 막바지에 있는 농장은 입구에서는 산업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행렬이 요란하지만 농장 안에 가면 심산유곡 같은 적막감이 감돈다. 향나무·소나무·단풍나무들이 가득 찬 농장에는 작은 도랑이지만 맑은 물이 넘쳐흐르고 시누대가 자라는 연못에는 분수대가 앙증맞다.

관리사 겸 창고로 사용하는 비닐 막사에는 4계절 내내 친구며 친지들이 찾아와 자연 풍경 속에 놀다가는 산속 별장 같은 장소이다.

그는 장차 이곳을 장애치유에 가장 좋다는 승마 체험장을 만들어 승마와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치유의 농원으로 조성할 꿈을 가지는 가장 애착을 갖는 농장이다.

백운 저수지 옆의 수변 농장

의왕시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는 단연 백운 저수지와 백운산이다.

해발 564m인 백운산은 과천 청계산에서 수원 광교산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한 명산으로 많은 등산객들을 모으고 있으며 이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을 막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1953년 저수지로 조성한 것이 11만평이나 되는 백운저수지다.

수도권이 개발 되면서 농업용수보다는 관광 위락 지역으로 개발되었으며 더구나 서울 사당지역에서 과천을 거쳐 접근하기가 용이한 남서울 지역 최고의 호수 공원이다.

예전에는 의왕시 청계동 아래 있어 청계저수지로



오전동 본농장의 반송포지



오전동 본농장 작업도로

도 알려진 이곳은 각종 음식점과 카페 등 독특한 건축물들이 즐지어 들어서 밤, 낮으로 휘황찬란한 그곳 저수지 물가에 그의 작은 농장이 있다. 지금은 느티나무만 심어져 있지만 앞으로 화목류를 심어 수변 관광농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란단다.

도심 속의 농장답게 그는 오전동 본 농장은 도시 공원으로, 오매기 농장은 치유의 장으로, 백운저수지 지역은 수변 농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참된 시민 정신으로 살아가는 조경인이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수익 경영

그의 농장 나무들은 하나같이 수수하며 친밀감이



화성 마도면 단풍나무 재배지

든다.

조경수 재배와 시공에 대하여 그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 땅값이 워낙 비싸고 또한 한군데 큰 덩어리가 나오는 것도 없어서 자연히 개발제한지나 자투리땅 등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 화성시 남양면과 마도면 지역, 평택시 팽성면 지역, 충남 아산지역, 강원도 횡성군의 둔내면, 갑천면 지역에 흩어져 있고 강원도 횡성 지역만 1만 평이 넘고 나머지는 몇 백평에서 몇 천평 정도의 작은 필지들로 사방에 3만 평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얼핏 보기에 전지나 수형잡기 등 관리가 미흡한 것들이 보인다.

그는 전지, 전정이나 수형 잡기로 너무 많은 인공미를 가한 조경수보다는 자연미가 물씬 풍기는 조경수를 재배한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인공미가 강한 명품을 생산하기보다는 그저 보통의 수수하게 기른 서민적인 조경수가 단가는 낮지만 대중들의 인기도 높고

비용도 절감된단다.

조경공사에서도 그는 규모나 금액이 큰 곳은 사공하지 않는단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없이 겪었던 부도나 사기에서 작은 것은 견딜 수 있으나 큰 것은 치명적이라서 그는 큰 공사에 욕심내지 않고 그저 작은 일이라도 견실한 시공으로 신뢰와 명성을 쌓아 가고 있다.

성실과 친화력의 조경인

우리 조경수협회의 인천, 경기남부지회는 80명이 넘는 회원에 대를 이어 조경업을 하는 역사 깊은 농장과 나름대로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형 농장들도 많은데 그중에서 조경업 경력도 짧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그가 금년부터 지회장을 맡게 된 것은 순전히 성실과 친화력 덕분이다.

항상 신뢰와 존경심을 가지고 회원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는 그는 새롭게 지회장을 맡아 회원 상호 간에 친목과 단결력을 증진시켜 조경수 판매 알선과 시공 정보들을 교환하여 회원 상호 간의





화성시 남양면 농장전경

이익 제고와 기술 향상을 위한 친목과 신뢰를 높이고 누구나 공감하고 따라 올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지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그는 지금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4대강 유역 수변 조경에 산딸나무나 팔배나무 같이 새나 다람쥐 등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수종을 많이 심어 둥. 식물이 어우러지는 조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경업은 개인의 사업을 넘어 국민 정서와 사회 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는 그는 현재 새의왕 로터리 클럽의 부회장과 오전동 방위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불우 이웃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장학 사업에 앞장서는 지역 일꾼이다.

부인 황옥자(62세)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모두 출가시켜 장남은 분가하고 현재 2남이 후계자로 같이 조경업을 하고 있으며 결혼한 딸도 사무실 일을 맡아 온 가족 모두가 조경업에 매달려 연간 15억



의왕백운저수지와 느티나무단지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늦게 시작한 만치 더욱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는 조경 가족이다. 🌳

